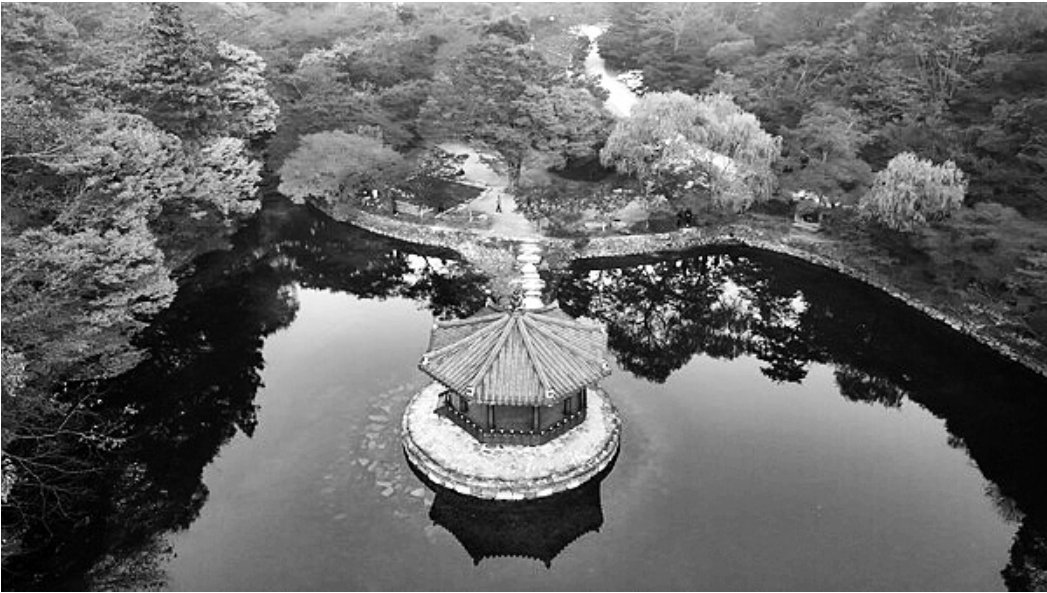


# 내장산 단풍터널 그 장관 속으로

우리나라 자생 단풍 11종 서식지  
애기단풍 울긋불긋 이번주 절정  
1년중 가장 눈부신 풍경 자아내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 단풍명소 정읍 내장산의 가을 단풍이 이번주부터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장산은 가을마다 그윽한 붉은 빛이 물드는 산으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어우러져 매년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  
내장산 단풍이 유독 특별한 이유는 이곳이 우리나라 자생 단풍 11종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당단풍, 좁은단풍, 털참단풍, 복자기를 비롯해 고로쇠, 왕고로쇠, 신나무 등 다채로운 단풍나무가 어우러져 독특한 풍광을 자아낸다.  
이곳의 단풍은 잎이 아기 손처럼 작고 고무며 진한 붉은빛을 띠어 ‘애기단풍’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포인트다.  
내장산 단풍의 백미는 단연 일주문에서 내장사로 이어지는 ‘단풍터널’로 붉게 타오르는 단풍잎과 천년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이 조화를 이뤄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



내장사 인근 우화정(羽化亭)의 단풍과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정읍시 제공>

이 깃든 ‘우화정’은 단풍과 조화를 이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케이블카를 타고 하늘에서 내장산을 바라보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겨진 가을 풍경이 펼쳐진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아기 손 같은 ‘애기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지금 내장산은 1년 중 가장 눈부신 옷을 입었다”라며 “단풍터널의 장관과 우화정의 고즈넉함 속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잊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시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2000억 규모 고령자 치유마을 구축 본격화

실버스테이·의료요양시설 등  
인프라 확충 치유 프로그램 도입

남원시가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인 ‘블루존 프로젝트’ 실현에 나섰다.  
남원시는 전북자치도 특화사업인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블루존 프로젝트’ 최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남원형 고령친화 정주모델’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블루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2044억원 규모의 전북도 특화사업으로, 주거·의료·돌봄·여가 통합된 고령친화 정주환경을 조성해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주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북도와 공동으로 고령자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의료요양시설, 체육문화시설, 건강지원시설 등 핵심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제도 정비와 국가공보 연계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남원시 용정동 일원으로, 교통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KTX·달빛철도 남원역, 17번 국도, 고속도로 IC 등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주여건 개선에 최적화된 입지다. 주요 의료기관과 시내 중심 상권과도 인접해 의료·복지서비스 연계형 고령친화도시로의 도약 기반도 탄탄하다.  
시는 은퇴 세대 및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전북자치도 특화사업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 조성사업-블루존 프로젝트’ 공모 선정을 위해 남원시 관계자들이 대응 회의를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환경 조성과 함께 건설·문화·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서 직·간접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문화·농업·예술이 융합된 고령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치유로 피어나는 삶, 머물고 싶

은 남원’이라는 도시 비전을 실현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지 선정은 남원시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전북자치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블루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토지 분할 사전검토제’ 시행

측량 접수 앞서 규제사항 검토...처리 기간 19일→4일 단축

고창군이 토지분할 측량 접수에 앞서 토지분할 신청 관련 규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토지분할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 비용 손실, 부동산 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해 왔다.  
고창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분할 측량 신청 전 지적팀과 관련 부서가 협업하는 토지분할 가능 여부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토지분할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덜겠다는 목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판소리 고법 김청만 명인 ‘동리대상’

신재효 선생 업적 계승·발전 공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인 김청만 명인이 대한민국 판소리 최고 권위의 상인 ‘제35회 동리대상’을 수상했다.  
동리대상은 고창군이 주최하고 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다. 판소리 사설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판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사람을 선정·시상한다.  
김청만 명인은 1946년 목포에서 출생해 2007년 보관문화훈장 수상,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부산에 술대학교 한국음악과 대우교수,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3년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로 지정됐고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판소리 교수로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보유자인 김청만 명인이 ‘제35회 동리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제공>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친환경 농업 육성 유기질 비료 지원

정읍시, 다음달 9일까지 신청·접수

정읍시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자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환경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했거나 등록 예정인 농업인이며 유기질비료가 실제 공급되는 시

기까지 유효하게 유지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12월9일이며 신청은 본인의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여러 시·군에 농지가 분산돼 있다면 각각의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신청해야 한다.  
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퇴비) 두 종류로 유기질비료는 20kg 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포대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  
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요천로 일원 도시 바람길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열섬현상 완화

남원시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요천로 일원 등 55ha 규모로 진행된다. 열섬 취약지역에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해 도시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

(2026~2029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도시 바람길숲은 도시 외곽 산림에서 발생하는 바람이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3년간 단계적으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생활권 녹지와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www.getbolworldheritage.org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 면적       | 한계 (km²) | 유산지역 (km²) | 완충구역 (km²) |
|----------|----------|------------|------------|
| 총면적(km²) | 2,030.03 | 1,284.11   | 745.92     |
| 서천갯벌     | 104.66   | 68.09      | 36.57      |
| 고창갯벌     | 74.11    | 55.31      | 18.80      |
| 신안갯벌     | 1,773.40 | 1,100.86   | 672.54     |
| 보성·순천갯벌  | 77.86    | 59.85      | 18.01      |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로부터 인정

###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물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적인 사취와 일반서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취

일반서식지 위에서 휴식하는 종도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체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로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뿔어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쾨뿔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친구와 함께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